



언제나 자신의 내면을 믿고 행할 수 있어야

일체가 한마음 한뜻으로서 천(天) 지(地) 인(人) 이 다 공용(公用), 공체(共體) 하면서 우리는 혼연 일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상(色相)이라는 것은 너 나 가 있으니 오래도록 못 만났습니다. 이렇게 오래간만에 여러분과 같이 한자리를 하지만 우리 색상이 허무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색상이 실재라는 것을 또는 실질적으로 이 색상이 있기 때문에 공부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면서도 공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망각하고 인간의 모습은 허무하다고 버리면서까지 이 도리를 알려고 애를 쓴다면 그것은 극히 오산일 것입니다. 수많은 스님들과 더불어, 인도로 중국으로 또 중국에서 인도로 법을 구하러 다니면서, 또는 좌선을 하면서 얼마나 모습을 망가뜨리고, 그 모습을 망가뜨림으로써 세세생생에 윤회가 되면서 얼마만큼 풀었는지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전 너무 실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어서 옛날에 명주를 말합니다. 지금은 실크라고 한다던 어찌 그것이 틀리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발전을 한 것입니다. 이름을 바꿨다고 해서 그것이 명주가 아니라는 말은 못하 시겠죠! 우리는 시대가 바뀌는 대로 방편도 바뀌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부처님의 뜻이요, 부처님의 법이요, 부처님의 활용이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태초가 있고, 불법이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지, 만약에 우리가 없다면 태초가 어땠으며 우주가 어땠으며, 실감할 수 있는 실체가 어디 있으며 상대가 어땠으며 세상이 어땠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을 알아야 하며 그 자신의 본능에 의해서 우주의 본체는 어디 있는가? 바로 천(天) 지(地) 인(人)이 근본이라면 그 천지인의 근본은 어디에 있는가?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면서 부처님 앞에 가야만 부처님이 계시는 줄 아는 그런 마음은 여간 어려서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처님이 가르치실 때에 '관세음보살'이니 '지장보살'이니 이렇게 가르쳤는데 그것은 이 손가락을 쳐들고 가리키는 손가락에 지나지 않습니다. '관세음보살'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관(觀)해 보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그것이 즉 보살이냐 하고 일러준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맹종하고 있습니다. 이름에 매달리고 있다 이겁니다. 상대성, 즉 불자라면 그 이름, 불계의 이름을 들고서 "컵이여, 목마르니 물 좀 먹게 해주시오." 하고 아무리 빌어도 내가 목마르는데 물을 축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인간이 질서 또는 계율, 법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름이 아니라면 모두가 서로 상부상조할 수 없으니가 지어놓은 것입니다. 이름을 불러야 할 때는 이름을 부르지만 물을 떠먹는 것은 이름이 없습니다. 물을 떠먹는데 "컵아, 나 너한테 물 떠먹는다." 이라고 부릅니까? 컵을 그냥 들어서 목마르면 물 따라 마시는 것입니다. 지금 컵의 이름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수많은 흘러내리면서 경을 안 본 사람 없습니다. 불자다 하면 경을 안 본 사람이 없고 세상을 살았다 하면 세상 이치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교양이나, 또는 법칙이나 이 세상 살아가는 도리를 너무도 잘 압니다. 효도도 할 줄 알고, 충성도 할 줄 알고, 나쁜 것도 알고, 좋은 것도 알고, 이렇게 절단을 넘어갈 수 있는 고등동물의 인간 자체가 만약에 컵의 이름만 가지고 매달린다면 물은 누가 줘니까?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질문할까요?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나는 그제 뒤 밀려빠져 죽은 건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 손가락으로 컵을 가리키는데 컵만 보지 말고 내가 목마르면 물 떠먹을 수 있게끔 가르치기 위해서 아따 그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야야, 공양을 들어오면 군말을 하지 마라. 짜면 물 따 먹고 싱거우면 간장을 넣어 먹어라." 그게 그냥 보편적인 말 아닙니까? 그런데 뜻이 말입니다. 그 후에 뜻을 보니 이것은 우주 이 세상 모두가 사생(四生)이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법칙의 긍정적인 말입니다. 긍정적인 법입니다. 만약에 "야, 짜다. 물 가져오너라." 이랬다면 벌써 삼백 년이 흐르고 말아요. 이거 한마디라면 우리 생활하는 데에 얼마만큼



지침이 될지 모릅니다. 또 이게 "싱겁다, 간장 가져오너라." 이렇다면 벌써 이거는 삼천 년이 흐르고 만다 이 소립니다. 들어와도 삼십 방망이 나가지도 삼십 방망이 한 소리가 바로 그 말의 뜻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간은 누가 타 먹느냐? 누가 간을 맞춰서 먹을까요? 짠 것도 아니고 싱거운 것도 아니라면 그것은 다 놔라 이랬습니다. 짠 것도 놓고 싱거운 것도 놔라. 놓으란다고 불교가 그냥 맹종하고 부처님 앞에 그저 타신을 믿으면서, 나 아닌 대상을 놓고 믿으면서 극진히 정성을 들인다 한다면 그건 자기들, 자신을 모르면서 맹종하는 것입니다. 그건 노예입니다. 이 세상의 노예입니다. 자기 자신이 간을 타서 맞게 먹을 수 있어야 그것이 참사람이요, 그것이 바로 스스로서 계율이 따로 없고 스스로서 질서도 없고 스스로서

법칙도 없다 하는 거죠. 그렇게 없기 때문에 철두철미한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진리는 고정점이 없다 이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이 지금 생활을 하면서
똑바로 관하고
세상을 바로 보고 바로 행하라
그것이 즉 보살이니라!

사람이 삿갓을 쓰고 죽장을 짚고 땅을 디렸으니
바리새 하나면 죽한 것을...
히히! 무엇을 더 바라라.

히히! 하고 하늘 쳐다보니 청경하고
내려다보니 땅은 잔잔하더라.

산천초목은 우거져서 무성
하나
물은, 바람물은 잔잔하게
흐르더라.

그러나 쳐다보고 울고 내려
다보고 웃는
그런 맛은 어디로 가고
사생(四生)의 눈물은 바다
를 메우고
바다를 메우는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어디
있는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
십시오.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만 생명이 있고 사는 법칙이 있는 줄 아시는 분은 없겠죠. 사생(四生)이라는 그 자체가 천차만별로 돼 있지만은 좀더 시야를 넓혀서, 사람만 죽지 않아야

살생이 아니라는 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만 쫓기고 쫓는 게 아니라 사생이 모두 쫓고 쫓기면서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나만이 생명이 있고, 나만이 살고, 나만이 천축이 있고, 나만이 행제가 있고 자식이 있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이 내면세계의 그 마음을 찾아서... 찾은 것은 아닙니다. 본래 있기 때문에 발견하라는 거죠.

이름해서 만약에 우리가 삼세심(三世心)이라 하면 일심(一心)이요, 일심이 드는 데는 이름으로써의 방편을 말하자면 '삼중천(三重天)'에 이릅니다. 왜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과거에 살던 그 이치가 피리를 물고 현실에 물러 있고, 현실에 사는 피리가 바로 미래에 얽혀 있으니 어찌 삼중천이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삼세심이 일심인 줄 알면 그 일심이 어디에 있는고?'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간장 얘기 한 거와 똑같이 만약에 이것이 틀린가 옳은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삼중천을 뛰어넘을 수 없어서, 하나가 어디로 간 건지도 모를 겁니다. 아따, 하나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그래서 삼중천이라 이름한다면, 방편으로서 사왕천(四王天)이다 합니다. 사왕천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삼중천에 연결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왕천이 바로 일심으로서의 원심력을 얻는다면 이 사방을 다 지배하고 들고고 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조들이 우스갯소리로 "너, 개구리 탕만 할 줄 알았지, 용탕은 할 줄 모르느냐." 이런 말들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아까 실크 얘기도 했지만 불법을 믿는 사람들은, 불교국이다 이런다면 항상 그게 자비라나요, 칼을 가지고 들어와도 가만히 있는 것이 자비라나요. 그게 아닙니다. 또 칼을 가지고 들어왔으니까 나도 칼을 가지고 대결을 해야 한다 그것도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삿갓 쓰고 죽장자 짚고 땅을 디렸고 바리새 하나면 죽한 것을..." 했죠. 그걸 뜻으로 보십시오. 만약에 구지 스님이 손가락을 하나 들었다면 손가락을 보지 마시고, 그 뜻을 말한다면 머리로 하늘을 받치고, 주장자는 기둥이 되고, 땅을 디딘 행방은 주춧돌이 돼서 바리새를 들고고 낼 수 있으니 그것이 바로 법륜(法輪)을, 사무사유(四無四有)의 법륜을 그냥 굴리면서, 체계 없으면서도 질서정연하게 체계가 있고 스스로서 법칙이 있고 한 것을, 그대로 자유스럽게 여러분이 중용을 할 수 있다.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진정한 자비가 어떤 건지도 모르면서 여러분 중에는 불법이란 무조건 자비하기 때문에 내가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세상의 법칙에 의해서도, 지난번에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까리끼리 자기가 죄 지은 대로 감옥에 넣었습니다. 모든 세상 돌아가는 것도 까리끼리 돌아갑니다. 상점에 놓여 있는 것도 까리끼리 놓여 있듯이, 인간의 마음도 그렇게 천차만별로 차원에 따라서 알맞게 자기 환경에 따라서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부는 모두가 부처님이 가르친 것을 질서정연하게 스스로의 법칙을 그대로 활용하라는 거지, 너는 그대로 고집해서 무(無)공(空)에 빠지라는 게 아니예요.

그래서 이름 붙여서 사왕천(四王天)이라 한다면 무명천(無明天)도 있고, 무명천이 있다 하면은 생사천(生死天)이 있다. 그 생사천은 누가 다루나? 만법천(萬法天)이 다룬다. 만법천은 누가 다루나? 여래천(如來天)이나 도솔천(兜率天)이나 도리천에서 다룬다. 모두들, 우리가 육황상제를 무엇으로 비유할 수가 있을까? 대법원장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모두가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데에 따라서 너무나 철두철명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도 자비요, 살려도 자비다. 사람뿐만 아니라 사생(四生)에 의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 만법천에서 생사천으로 지배를 하고 있는 사실은 뭐냐? 여러분 과거에 살던 그 자체가 지금 현실에 살고 계십니다. 과거에 살 때에 사신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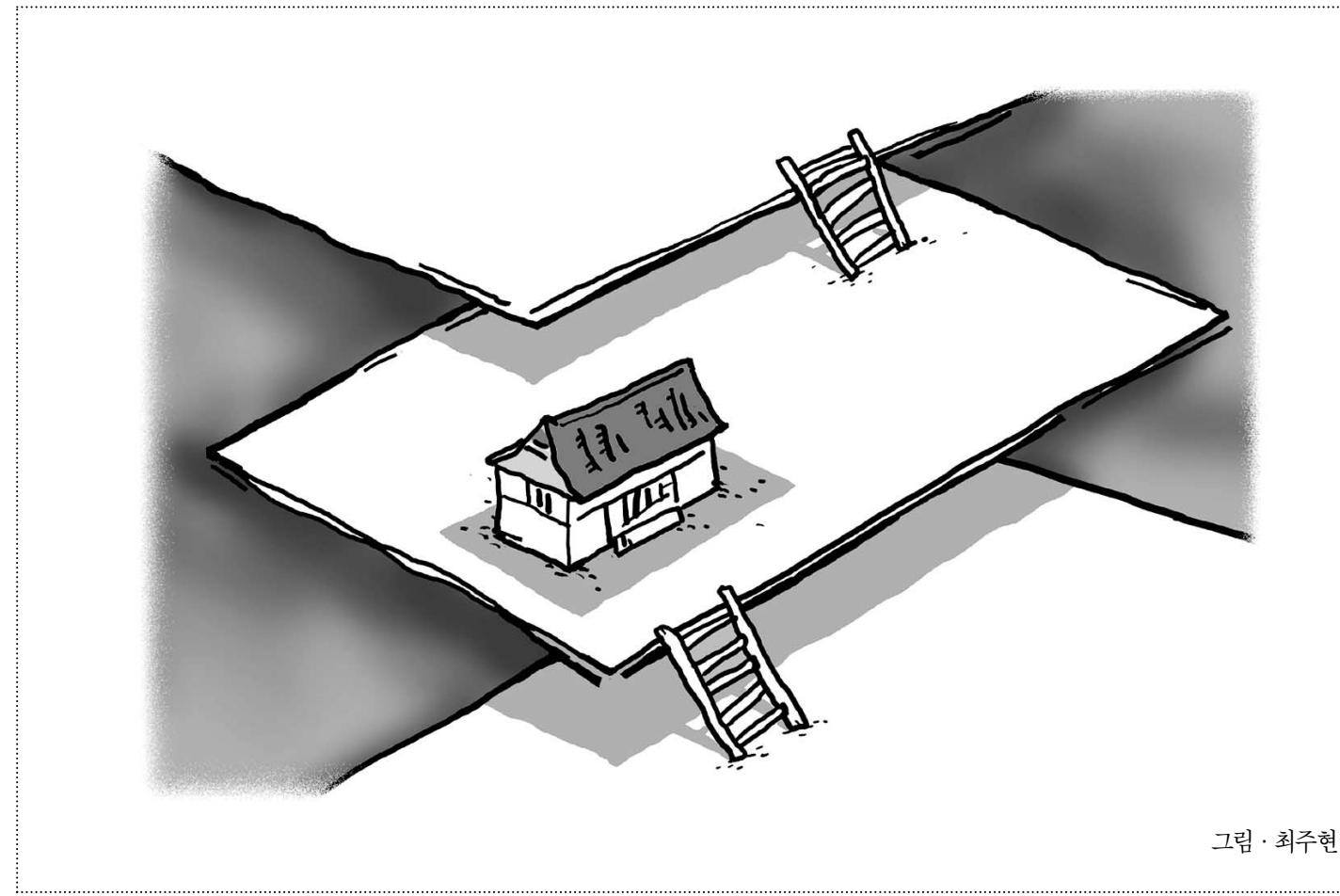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